

(주소) 15651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전화) 032-890-4826 (팩스) 032-890-4819

배 포 일	25.10.14.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 문의
보 도 일	배포즉시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 개관기획전 《다시, 집들이》 개최		5	7	gcc.ggcf.kr	부 서 : 창작지원팀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 담 당 자 : 김지연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 개관기획전 《다시, 집들이》 개최

- ▶ 작품 전시와 판매를 병행하는 국내 최초의 공공형 갤러리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 개관
- ▶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에서 개관기획전 《다시, 집들이》 개최
- ▶ 경기창작캠퍼스 레지던시 출신 작가 20명의 작품 총 90여점 전시, 판매
- ▶ 공공갤러리 개관 연계 특별강연 〈작품 어떻게 사요?〉 진행, 온라인 예약 후 참여

전시 포스터	전시 개요
 다시, 집들이 House Warming Again 2025. 10. 15. Wed - 11. 30. Sun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 강상우 강주리 김용관 김 을 김재유 민성홍 민정기 박형렬 신미경 안상훈 양정욱 오유경 이여운 이 완 전진경 정철규 조문희 차승언 천대광 최기창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 개관기획전	• 전 시 명 : 《다시, 집들이》 • 기간 : 2025.10.15.(수)~11.30.(일) 10:00~18:00 (월요일 휴관) • 장소 : 경기창작캠퍼스 교육동 1층 공공갤러리 • 전시내용 : 경기창작캠퍼스에서 일상을 지내고 작업하던 20인의 작가가 다시 집의 주인이 되어 과거로부터 수집되거나 발전시켜 온 시각적 흔적과 생각들을 선보임. 축하와 온기를 나누며 집을 따뜻하게 데운다는 뜻의 하우스 워밍(House Warming, 집들이)처럼, 오래되고도 새로운 집에서 서로의 안녕과 축복을 건네는 자리로 기획 • 전시기획 : 김지연, 황희승 • 참여작가 : 강상우, 강주리, 김용관, 김을, 김재유, 민성홍, 민정기, 박형렬, 신미경, 안상훈, 양정욱, 오유경, 이여운, 이완, 전진경, 정철규, 조문희, 차승언, 천대광, 최기창 • 주최주관 : (재)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캠퍼스 • 협력 : 아터테인

경기문화재단(대표 유정주) 경기창작캠퍼스(구 경기창작센터)는 오는 10월 15일(수)부터 11월 30일(일)까지 공공갤러리 개관기획전 《다시, 집들이》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창작과 전시, 판매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국내 최초의 공공형 미술 유통 플랫폼인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의 문을 여는 첫 전시로, 그동안 경기창작캠퍼스 레지던시를 거쳐 간 20인의 입주작가를 초청하여 신작을 선보인다.

국내 최초의 공공형 미술 유통 플랫폼의 시작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는 국내 최초로 창작과 전시, 그리고 창작 이후의 단계인 유통과 확산이 순환하는 공공형 미술 유통 플랫폼으로, 그간 아트 레지던시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경기창작캠퍼스가 미술시장 활성화와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다. 경기창작캠퍼스 교육동 1층에 위치한 약 120평 규모의 전시 공간을 거점으로 역량 있는 창작자들에게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전시된 작품은 별도의 갤러리스트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미술품 유통 사업자를 통해 유통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경기창작캠퍼스는 지난 9월 공모를 통해 5명의 등록 갤러리스트 선정을 완료했다. 판매된 작품에 대한 수익은 작가와 갤러리스트 간 지정 비율에 따라 정산되며, 갤러리스트 수수료의 일부는 재단 기부금으로 환원되어 향후 경기창작캠퍼스의 공익적 프로그램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창작캠퍼스 레지던시 출신 작가 20인이 준비한 '다시, 집들이'

이번 사업의 출발점이 되는 개관기획전 《다시, 집들이》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창작캠퍼스에 머물고 작업했던 다양한 세대의 입주작가를 조명한다. 한때 생활의 터이자 예술적 사유의 '집'이었던 경기창작캠퍼스에 작가들이 다시 모여 소중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집들이'의 의미를 담고 있다. 참여 작가는 총 20인으로, 강상우, 강주리, 김용관, 김을, 김재유, 민성홍, 민정기, 박형렬, 신미경, 안상훈, 양정욱, 오유경, 이여운, 이완, 전진경, 정철규, 조문희, 차승언, 천대광, 최기창이다. 회화, 사진, 조각 등 90여점의 출품작을 통해 여러 시각예술 영역에서의 매체 실험과 사회문화적 주제의식, 동시대적 감각에 대한 사유를 거쳐 고유한 시각 언어를 구축해 온 작가들의 다채로운 작업 세계를 살펴볼 수 있다.

예비 컬렉터를 위한 공공갤러리 개관기념 특강 <작품 어떻게 사요?>

전시 개막일 15일 오후 3시부터는 경기창작캠퍼스 선감생활동 2층 세미나실에서 등록 갤러리스트이자 이번 전시의 공동기획자인 황희승 디렉터가 진행하는 강연 프로그램, <작품 어떻게 사요?>가 마련되어 있다. 미술시장과 작품 컬렉팅에 관심 있는 예비 컬렉터를 대상으로 한 이 강연은 '왜 예술이 나의 삶 속에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추어 컬렉팅 취향과 안목을 키워나가는 방법, 첫 그림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쉽고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강연 참여는 무료이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정보는 경기창작캠퍼스 누리집(gcc.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문화재단 정재우 지역문화본부장은 "공공형 상설 미술품 거래소인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의 개관은 레지던시와 연계한 창작지원의 방법론으로서도 의미 있는 일일 뿐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과 문화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새로운 시도"라며, "경기창작캠퍼스의 새로운 도전이 작품 창작부터 향유, 유통까지 이어지는 문화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작품 구매에도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첨부 자료

- 전시 포스터

다시, 집들이

House Warming Again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

2025. 10. 15. Wed - 11. 30. Sun

강상우	강주리
김용관	김 을
김재유	민성홍
민정기	박형렬
신미경	안상훈
양정욱	오유경
이여운	이 완
전진경	정철규
조문희	차승언
전대광	최기창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 개관기획전

   경기창작캠퍼스 ARTERTAIN

- 주요 출품작



민정기, 〈서후리에서 벼베기〉, 2025, 캔버스에 유채, 45.5×53cm



민정기, 〈서후리에서〉, 2025, 캔버스에 유채, 45.5×53cm

작가 및 작품설명

민정기는 1980년대 민중미술운동 '현실과 발언'의 동인으로 활동하며, 당시 주류 이데올로기와 모더니즘 미학, 고급예술에 반하여 정치, 사회적 비판의식과 한국적 정서를 결합한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1987년 서울에서 양평 서후리로 이주한 작가는 논, 밭, 산 등 주변의 농촌 풍경을 본격적으로 화폭에 담기 시작했다. 밭 딛고 선 현실의 삶과 터전에 관심을 두고, 반복적이지만 그 땅의 정취가 담긴 풍경과 사람의 흔적을 기록하듯 그려냈다. 이렇게 애정 어린 시선으로 포착한 풍경들은 공간의 고유함과 역사성을 드러내며, 삶에 뿌리내린 회화적 언어로 응결된다.



김을, 〈Beyond the Painting 2021-14〉, 2021, 혼합매체, 74×114×15cm

작가 및 작품설명

김을은 회화, 사진, 조각, 설치 등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매체를 경유하며 작업해왔다. 〈Beyond the Painting〉 연작은 회화의 표면에 대한 회의와 그 위계에 대한 경계로부터에 출발한 것으로, 언뜻 보면 전통적인 회화 작품처럼 보이지만 화면 한쪽 움푹 파인 공간 안에 밥 딜런(Bob Dylan)의 얼굴이 실린 라이프지(LIFE)와 아크릴 물감 통은 평면 너머 예술가의 작업실, 미완의 현장을 환기한다. 또한, 캔버스 하단의 서랍 모양 조각과 부조 형태의 창문은 회화와 조각, 가구의 경계를 흐리고 환영을 자아내는 평면의 뒷면, 그 너머의 무한한 시공간과 진실의 세계를 상상하게 함으로써 2차원 화면의 위계를 재치 있게 전복한다.



김을, 〈Beyond the Painting 2021-9〉, 2021, 혼합매체, 46×53×16cm



신미경, *Ghost Series 0004*, 2010, 비누, 바니시, 안료, 향료, 32×16×16cm

신미경, *Ghost Series 0072*, 2008, 비누, 바니시, 안료, 향료, 57×28×28cm

작가 및 작품설명

신미경은 중국풍 도자기나 그리스 로마 조각상 등, 동서양의 고전적 미감을 대표하는 특정 도상을 비누라는 재료로 조각해 재현해왔다. 다른 세계의 눈에 비친 이국적이고 이질적인 외관은 더욱 강조되고, 본질과도 같은 견고한 물질성은 벗겨져 나가며 연약한 비누라는 매체로 치환된다. 이 과정에서 원본이 지니던 권위와 가치는 희미해진다. 원래 놓여 있던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이동함으로써 조각은 초과 실재화되거나, 반대로 원본보다 훨씬 축소되고 왜곡된다. 무늬가 없어 도자기임을 겨우 짐작할 수 있는 투명한 비누 조각은, 문화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과 간극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